

베트남의 국제경제 통합의 기본동향

응웬 썬

국제경제협력국가위원회 사무처

NCIEC

National Committee for
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

목차

1.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“WTO 후기” 단계에
국제경제 통합의 주도적인 추세임
2. 베트남이 기체결 FTA의 협상과정 및 기본내용
3. 향후 FTA 협상 시의 지도적인 원칙

-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위한 협상 추세

- 도하라운드 교착상태에 빠짐

개발국은 FTA 협상을 통해 WTO 협상과정을 지원할 것을 희망함.

- 수출시장 개발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대한 수요

- 국제무역무대상 아시아-태평양 지역의 위치

- 베트남은 **WTO**에 가입함으로써 역내 연합체제에 참여하기 위한 유리한 전제를 마련함.
- 무역 관리 법령, 정책 등이 국제기준에 의해 보완됨;
- **WTO**의 자유화공약은 **FTA** 협상 시 더 높은 자유화 기준의 전제를 마련함;
- 사회인식이 향상되며 공무원의 역량이 공고히 됨.

● 성공사례

- 중요한 시장 접근기회 강화.
위기에도 불구하고, 수출입액이 20-30%를 성장됨.
- 무역자유화 및 국내 개혁 과정의 동력 유지.

ASEAN => ASEAN+1 => TPP, RCEP

- 투자환경의 매력성 강화.
- 국제무역무대상 아세안은 물론 각국의 위치 강화.

- 현안

- FTA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함 => 무역적자.
 - => 수출품 구조에 대한 이전을 조성하지 못함
 - => 경쟁, 기술기준, 특허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 미보완
- 관리능력 및 기술인프라가 FTA 관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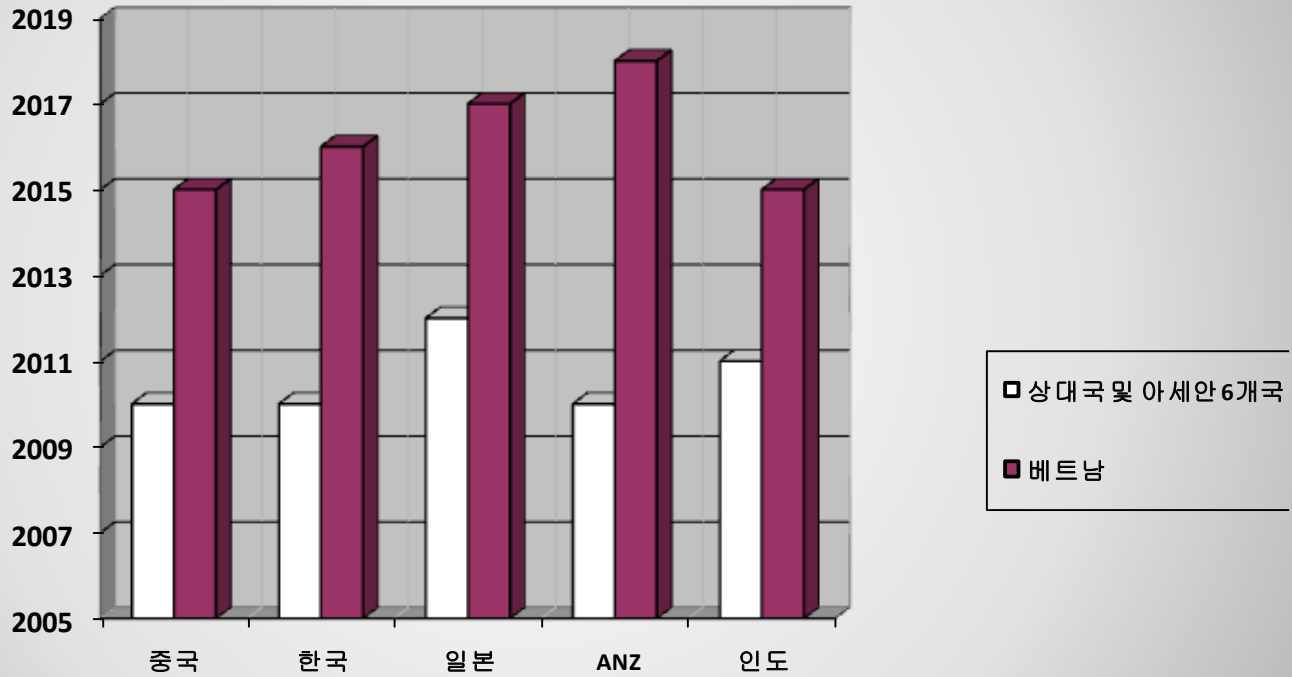
2. FTA 협상 및 체결 현황

- 기체결:
 - * ASEAN+1 차원의 FTA 5건:
중국(ACFTA), 한국(AKFTA), 호주 및 뉴질랜드(AANZ FTA), 인도(AIFTA), 일본(AJFTA)
 - * 일본(AJEPA), 칠레와의 양자 FTA
- 협상 중 : EU, 카자흐스탄·러시아·벨라루스 관세동맹, 한국,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(싱가포르, 뉴질랜드, 브루나이, 칠레, 미국, 호주, 말레이시아, 페루, 멕시코, 캐나다, 베트남), EFTA(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).
- 타당성 조사 : 터키, 대만 등

- 기체결한 **FTA**를 통해 제공되는 기회

- 협정이 발효한 이후부터 3년간 상대국의 관세표 약 90%(일반리스트)가 철폐됨.
- 2015-2018년간 FTA를 완료한 이후 상대국의 관세표 약 98%가 자유화됨.
- 베트남이 상대국 및 아세안 6개국 대비 5년이 더 긴 경로의 혜택을 수령함(도표 참고);
- 시장경제규제 인정, 노동자 송출 등과 같은 베트남의 무역이익 일부를 해결하는 것과 결합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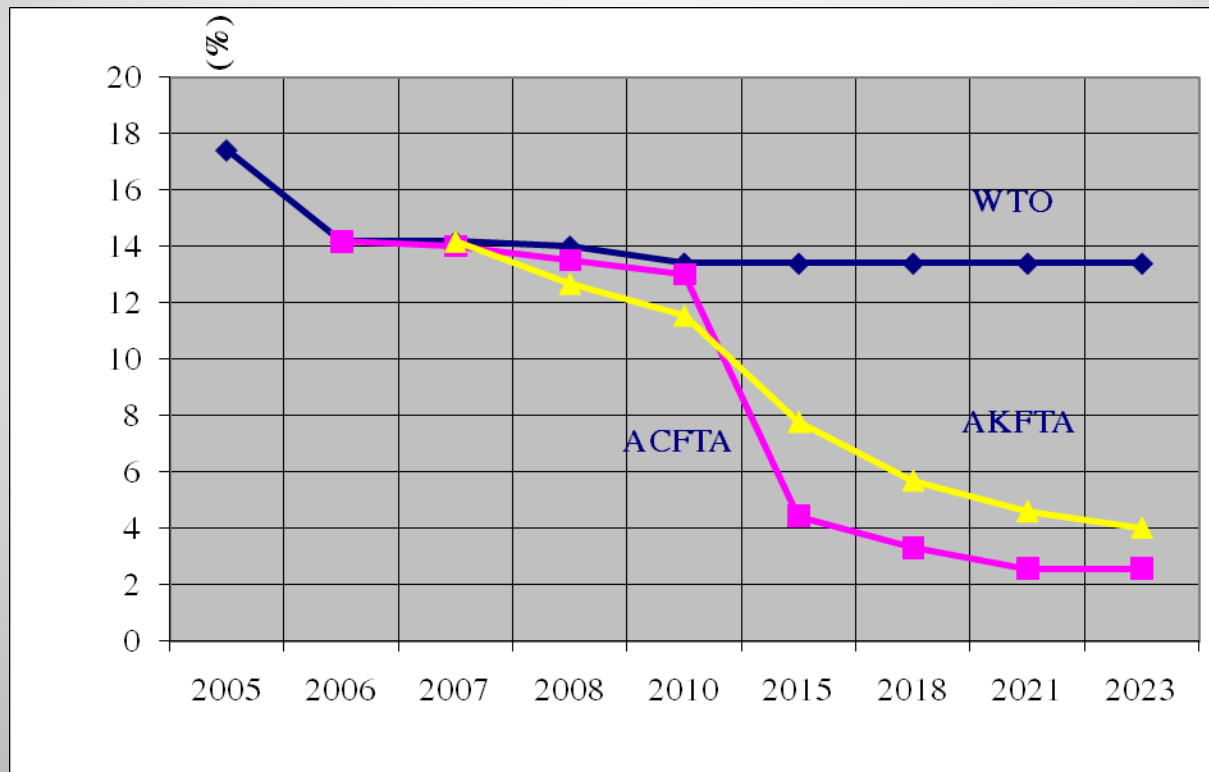
기체결 상대국 및 베트남의 일반품목리스트상 특혜관세 인하 프로그램 도표



- 도전

- 관세인하기준이 WTO보다 높음(도표 참고);
- 2015년부터 수입관세표 90% 이상을 철폐할 예정임.
민감리스트상 품목 인하 시작

WTO 비교 FTA의 특혜관세 인하 프로그램 도표



베트남 무역에 대한 **FTA**의 영향

- *수출액이 증가하나 FTA의 잠재력을 아직 다 활용하지 못함.*
 - + 원료, 농산물 등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이 낮은 관세율이나 **0%** 세율을 이미 적용하고 있음.
 - + 혜택을 받는 품목인 기계, 설비, 전자제품 등이 베트남의 수출품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 - + 시간면 및 기타 비용(C/O, 세관절차 등)이 발생한 가운데 특혜관세에서 형성된 이익이 매력이 없음.

- *WTO 및 FTA의 겹친 조약으로 인한 수입 증가*
 - + 기계, 설비, 전자제품 등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되어있음으로 동 제품 수입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.
 - + WTO 공약에 따라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외국인직접투자 업체는 보호세를 더 이상 받지 못해 생산을 그만두어 수입분야로 이전함.

3. FTA 협상 시의 지도적인 원칙

*2012.8.9일자 2020년 목표 자유무역합의 참여전략
승인 결의문 제1051/QD-ITg호*

1. FTA 참여는 산업화 현대화에 따른 경제구조
이전과정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여야 함.

- 목표: 시장, 하이테크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
- 가치사슬 참여

2. 개혁을 강화, 무역환경의 경쟁력을 향상,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.

- 관세장벽이 폐지된 상황에서 세이프가드, 기술적 장벽 등과 같은 기업보호체제를 도입함.
- 거래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C/O, 전자세관 같은 수입절차를 개혁함.

3. 경제의 능력에 적합한 공약내용

FTA 약조는 주고받는 약조임.

기업 자문을 강화하며 분석, 예측을 하는데 연구기관의 역할 강화함.

4. 대외관계를 다양화, 다방화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FTA에 참여함.